

## 시모타코의 유서 깊은 오래된 삼나무

시모타코 인공림은 약 500년 전에 조성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림 중 한 곳('가장' 오래된 곳이 아니라고 해도)입니다. 3,700 m<sup>2</sup> 규모의 인공림에는 삼나무와 편백나무가 이끼와 양치식물로 뒤덮인 비탈에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여기저기 보이는 그루터기는 방문자들에게 나무가 아름다운 풍경만을 제공하는 존재가 아님을 상기시켜 줍니다. 시모타코의 나무 중에는 수령이 약 400년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나무가 세 그루 있습니다. 나머지 두 그루보다 더 커 보이는 나무는 대략 410년 된 삼나무로, '역사의 증인'이라고 불립니다.

숲은 수 세기 동안 벌목과 재식재를 거듭해 왔습니다. 능선 아래쪽의 나무는 수령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길가와 가까울수록 베어내고 운반하여 대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능선의 정상에 가까울수록 더 크고 오래된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곳이 높이 약 55m, 둘레 5.4m인 '역사의 증인'이 있는 곳입니다.

길에서부터 능선의 정상 근처에 있는 커다란 나무까지 오솔길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사유지를 지나는 오솔길이기 때문에 숲으로 들어가려면 공식 가이드를 동반해야 합니다. 능선까지 이어지는 1.3km 하이킹은 1시간가량 소요되며 적당히 체력을 요하는 수준입니다. 가이드 투어는 가와카미 원류 투어리즘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투어 요금의 일부는 마을의 삼림 유지 관리 지원 목적으로 기부됩니다.